

제2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6. 1. 14(목) 14: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김남효, 박상희, 박춘호, 박태욱, 이낙경, 변태순
이상봉, 이종건, 이혜경, 이혜선, 임상빈, 정영숙
- ◆ 안 건 : 미술작품 4건 9작품(조각 9)
[신규 9작품]
- ◆ 결 과 : 승인 5작품, 재심 4작품
- ◆ 회의록 확인 : (서명), (서명)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2016년 제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위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 본 회의 종료 후 참석위원 중 2명은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서명하여야 됨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

<위원장>

- 그럼 의견에 따라 사전토론을 먼저 한 다음 개별 채점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 1번 작품은 지난 번에 낙타라는 작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네 이 건은 2015년도 19차 심의시 마곡지구에 쌍둥이 건물로 먼저 심의 들어온 작품이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옆에
- 작품 별로 보면서 바로바로 의견을 주면서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 다리가 워낙 가는데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기존에 몇 군데 세워진 작품이고 구조적으로는 사고 등은 없었습니다.
- 작품의 안전문제 등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 18페이지에 나오는 보존 계획을 보면 너무 녹도 슬지 않고 파손되지도 않고 하는 등등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있어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스텐레스가 보존성에 있어서는 좋은 재료인거 같습니다.
- 작품의 조형성으로 봤을 때는 길이도 비슷하고 각도도 비슷하여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한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나무가 일렬로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나요?
- 당연히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죠. 다른 시각을 가진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전 높이는 같아서 재밌는데 다리가 대동소이해서..

- 약간의 안으로서 제시를 해도 괜찮을 거 같네요. 권고사항으로요. 설치된 거는 여러 번 봐주세요.
- 비슷한 다리 모양의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품마다 차별성, 연속성, 일관성, 조화 등 이런 것이 복잡해진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가의 스타일로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굵고 복잡하거나 다른 식으로 했다면 다리 사이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개방성에 방해되지 않을까 해서 길고 높고 가늘게 상호공간성을 염두하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요.
- 작품 설명을 읽어보면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매스감이고 특히 다리인데 과도하게 다리를 시공을 초월한 정말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한 거 같아서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의 특성과 미학적인 것을 감안해서 건물과 지역과 공간하고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 다른 작품과의 유사성을 찾는다면 달리 작품같은 느낌입니다. 조형 자체가 나빠 보인다고 보다는 달리의 회화작품이 연상이 되기도 하구요. 좀 다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악수하듯이 발 하나 든다든지 하면서 좀 발상을 했으면 재밌었을거 같습니다.
- 지난번 옆 건물에 낙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심의 통과되었는데요. 쌍둥이 건물에 설치되는 작품이라면 그 작품과 이 작품을 같은 선상에 놓고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작품과 이 작품이 놓여지는 위치나 건물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난번과 같은 건물이고 동일한 작품이라면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시기적으로 같이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 온 건가요?
- 네, 늦게 들어왔습니다.
- 장소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의 작품은 같이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이신데요. 이 심의에 들어오면서 몇 달 전부터 작품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요. 다수 작품들이 시야를 가리고 주변과 맞지 않는 인상을 받는데요. 그런 작품들이 서울 전역에 너무 많이 깔려 있더라구요. 그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심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의 승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2번 작품 먼저 심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 네, 그럼 2번 작품을 먼저 하겠습니다.
- 1번 작품처럼 스텐레스이네요. 가격책정에서 2번 작품이 적절한 건지 궁금합니다.
- 스텐레스는 용접 방법, 두께, 업체마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적정성은 이게 맞다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을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텐레스에 용접을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 등으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2번은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1번은 스테인리스만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가격이어서
- 인건비의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1번 작품은 두드리는 단도 방식은 완전 수작업이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3

번과 같이 밴딩을 하는 작품에 비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1번 작품이 작은 작품이 아닙니다.

- 2번의 마모현상의 작품은 기존의 스텐레스 파이프라든가 만드는 곳에서 굽기라든가 제작하기가 쉬운 형태인데요. 1번의 단도는 제작기간과 많이 듭니다.
- 둔탁한 느낌은 좋은데 표정이 좋은가요? 얼굴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 주제가 기쁨을 전하는 가족인데 아무리봐도 기쁨을 주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 3D기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표정은 알아서 하는 거고 책자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 주는 거고 작가의 뉘미라고 생각합니다.
- 3D가 실제 작업과 같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름 거라고 예상할 하면 안 되는 거죠
- 호랑이인데요. 나무에 올라가니까 고양이 같기도 하구요. 나무에는 오히려 호랑이를 빼고 완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작가가 작품 설명에 호랑이에 대해 우호감 있게 표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승인되었을 경우 다양한 표정의 변화를 단서로 주면 어떨까요.
- 호랑이가 7마리인데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면 가족의 느낌으로 따뜻하게 전하려면 부모를 밑에 놓고 새끼를 올려 넣든지 하는 조형적인 어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찍어 나온 인형 같습니다.
- 호랑이의 다리 수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크기에 변화를 줄 수

도 있겠네요. 각자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작품과 같은 작품의 지난 심의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동물은 낙타인가요?
- 쌍둥이 건물인데 같이 심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심의를 요청한 거 같습니다.
- 쌍둥이 건물이니까 너무 상이한 작품이 있는 거 보다는 비슷한 느낌으로 선정된 거 같습니다.
- 같은 작가의 작품인가요?
- 같은 작가이고 모방은 아닙니다.
- 조형성이 좀 아쉽습니다.
- 저는 조형성이 오히려 좋은 거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사람이 접근할 때 만질 수 있는 건가요?
-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한 거 같구요.
- 만져도 상관이 없고, 오염도 덜 타고 상관없고 올라탈 위험도 없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 다리를 안정감 때문에 4개를 다 지지하게 만든 건가요?
- 다리를 들 수가 없는 게 아마도 올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보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험해보입니다.
- 특히 하하하 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20T 스테인리스인데 작은 줄였다고 해도요.
-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위

힘해 보입니다. 스트리트 퍼니처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고려 같은게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 내용적인 면에서는 참신할 수 있는데요. 계속 영자만 이용하다가 한글도 이런 좋은 내용이 들어가서 좋은 거 같은데요 이 작가가 차라리 재료를 바꾼다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나무로 한다던지요. 그리고 전체 두께가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단조로운데 아쉽습니다. 두께를 다르게 하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 작품의 색의 발런스도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 저도 두께가 같아서 단조로운 느낌인데요. “그래” 같은 작품은 재밌어요. 특히 래자 같은 경우 미끄럼틀 같고 글자로 쉽게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미학적인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철판이라고 똑같은 두께로 했는데... 두께가지고도 충분히 재미있게 변주를 꾀할 수 있을텐데요.
- 아마 공공조형물은 얼마 접하지 않은 젊은 작가인거 같습니다. 재료적인 면이나 안전성 보완한다면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될 거 같습니다.
- 3-2, 3작품이 인터랙티브한 작품인데 위험성에서 재질을 바꾸면..
- 재질이 스텐레스 스틸이거든요 거기에 알루미늄하고 특수 우레탄 도장을 해서 색을 입힌다고 하는 건데 나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조형물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 외부작품에 나무로 된 작품이 있긴 한데요. 2-3년되면 작품이 변색되거나 썩는 등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판자형식이기 때문에 나무로 하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은 컨셉이라든지 일반적인 형태는 괜찮습니다. 안전성에 가장 문제가 되어서 10페이지를 보시면 모서리가 나오는데요. 18페이지를 보면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하자의 모서리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올라탈 텐데요. 머리에 부딪치면 찢어지구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풀어나가는 재료와 형식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 만약에 높으면 천장을 바라보면 재미있을 거 같은데요.
- 야외에 설치되는 거라서 문제가 있겠네요. 10센티 2t의 두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 작품은 재미나고 발랄한 면도 있고요. 얇은 판으로 만들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두께를 보완하고 라운딩을 한다면 훨씬 보기 좋고 무게감도 있어서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라도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람들이 작품에 들어가서 앉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쉽고요. 두께의 보완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케이 고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요. 거기에 영자로 배열이 되는데요. 영자가 배열되면서 블록같은 재료도 어떨까 싶네요.
- 내용은 좋은데 풀어나가는 재료와 형식에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앉아 있다고 하지만 튀어나와있는 철판 구멍들을 아이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하하 두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다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주거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노란색 그레하고 빨간 색 우리는 두께를 조정하고 라운딩을 주면 좀 괜찮은데 하하하는 두께를 조절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 작품의 변화를 주라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솔루션을 받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제안을 통해서 재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의 훼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안들을 참고해서 다른 작품으로 재심의를 할 수도 있죠.
- 70점 미만이면 재심의를 되구요. 그때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기재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그림 4번 작품입니다.
- 원에 무늬가 들어간건가요?
- 카푸어 작가 작품과 너무 비슷한데요.
- 이 4개 작품은 작가가 다 다른거죠?
- 다 다릅니다.
- 4-4작품은 식물로 하는 건 괜찮은 거 같은데요.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하는데 4계절 이런 식으로 유지되기는 힘들어서 유지보존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식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 안에 식물이 진짜 식물이 아니라 스텐레스로 도색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조나 조화 작품을 봤을 때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이미지대로만 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미지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도대체 이미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 3-1,2,3번 작품은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 각 위원님들께서 작품에 대해 점수로서 주시면 됩니다.
- 조건부로 통과가 되어도 사후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엄격하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이 되면 반영이 안 되었다 해도 다시 번

복이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 유지보수 10점인데요.
- 조건부가 어렵다고 하면 재심의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70점 이상이되어서 승인이 되더라도 재심의를 유도할 수 있는 건가요?
- 70점을 기준으로 결과가 승인이 되거나 탈락이 되었는데도 본 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이의제기 시 재공개토론을 통해서 재결정이 가능합니다.
- 4-1번 작품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작품인거 같습니다. 합정역 앞에 불 들어오는 사슴 작품이 있는데요. 심의 후에 설치된 작품에 대해 표절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작품도 비슷한 작품이 리움작가의 작품도 있고 국내 다른 작가의 작품도 상당히 있는데요. 단순히 구를 작품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작품은 공이라는 형태로 바꾼 거 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승인이 된다면 차후 다른 작가들 사이에서 나중에 애기가 분명히 나올 거 같습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해바라기를 그렸다고 해서 고희의 작품을 모방한 게 아니듯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채점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위원장 : 네 결과 나왔습니다. 총 5작품이 승인되고 4작품이 탈락되었는데 그럼 먼저 승인된 작품 중에서 기타 부기사항이나 조건부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번 작품의 호랑이 얼굴 표정과 크기에 대해 언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 그럼 그 작품에 대해 조건부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조항은 없나요? 그럼 탈락된 작품의 사유를 기재하겠습니다. 3-1,2,3번은 안전성문제, 4번 작품은 독창성결여로 기재하겠습니다.

○○○ 3번 작품 3개는 안전성만 언급하면 이해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 줘야 할 거 같습니다.

○○○ 작품은 독창성 등은 좋으나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언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9개 작품 중 3-1,2,3번과 4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